

“부르짖는 자의 샘”

❖ 사사기 15:14-20

- 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지라
-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 16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어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나라
- 17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 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 18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 19 하나님은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 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라맛레히, 엔학고레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레히로 끌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끌려오는 삼손을 보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와 영이 강하게 임하여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이 불탄 삼처럼 풀려나갔습니다. 삼손은 근처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휘둘러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이고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어.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우리말에는 라임이 잘 안 드러나는데 원어로는 ‘나귀’와 ‘더미’의 발음이 같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레히’는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지명이자 ‘턱뼈’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이또한 언어유희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마친 삼손은 죽을 만큼 심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갈증을 해결한 후에 그 샘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승리 이면의 그림자

삼손의 승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삼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박을 끊었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듯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였습니다. 로렘나 무에서의 엘리야처럼 극적인 승리 후에 탈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샘을 내셨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의 이면에는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삼손이 무기로 사용한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삼손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뼈를 만짐으로 사체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나실인 규정을 또다시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후에 부른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에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손은 오로지 자기 능력만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손이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도가 삼손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삼손에게는 술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가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기자는 각 사사들의 활동이 끝날 때마다 그 사사가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은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평안을 누렸다는 간략한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도 없고 이스라엘이 삼손이 다스리는 동안 평안을 누렸다는 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사사로 지냈다’는 것은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내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과 능력을 받았지만 평생을 자기 능력만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으며 자기 눈에 보기에만 좋은 대로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종

이사야 53:7-12을 읽겠습니다.

❖ 이사야 53:7-12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삼손은 자기 동족의 손에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질 뻔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도 삼손과 같이 자기 동족의 손에 결박되어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 양처럼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는 삼손과는 닮은 듯 전혀 다릅니다. 이 구원자에게는 삼손이 가진 힘과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 고난의 종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밧줄을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고난의 종은 강포를 행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자랑했지만 고난의 종은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곤욕과 심문을 당합니다. 원수들에게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마침내 죽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분풀이를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고난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질고를 당합니다. 삼손은 악을 악으로, 죄를 죄로 갚았지만 고난의 종은 죄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지도, 후손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고난의 종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많은 후손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삼손과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고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등장한 사사들 중 가장 뚜렷하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뚜렷하게 예수님과 대비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손과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도 상반됩니다. 삼손은 오직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조롱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결박을 끊고 십자가에서 탈출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조롱한 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인한 즉각적인 심판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 누가복음 22:39-46

-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 40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 41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 43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후에 극심한 갈증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 나의 원이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겻세마네 동산에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비롯한 우리 신앙 생활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결코 삼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설교 예화나 간증의 소재로 선호하는 것은 삼손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지, 예수님께 받으신 응답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에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 중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신대로 층간소음의 주범이 큰 사고를 당해 꿈쩍 없이 누워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시면서 전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 지금까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기는 하시겠지만 전율을 느낄만큼 놀라지도 않으실 것이고 소문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급한 일이 있을 때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내 소원을 먼저 아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습관에 따라 드리는 평범한 기도보다는 삼손과 같이 극심한 고통을 만났을 때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앞두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는 기도보다는 일단 내가 일을 저질러놓고 하나님께 뒷수습을 맡기는 기도에 익숙하거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소원을 포기하는 기도보다는 어떻게든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를 더 능력있는 기도로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삼손을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

예수님은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땀이 피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유혹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제자로써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사사로 부름 받기 전에 이 자리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다면 삼손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 눈에 반했을 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입어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욕망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자유롭게 포도주를 마시고 사자 주검에서 꿀을 취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았을 때도 분노를 다스리고 선으로 악

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일단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후에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싸움을 앞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게 하시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삼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힘과 자유분방함을 과시하는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만큼 많은 유혹이 따르기 때문에 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을 절제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불신자들에게까지 인기를 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께 인정 받는 진정한 영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삼손이 받았던 유혹과 동일한 유혹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잠시 구별됨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 틈에 섞여 물 흘러가듯 살고 싶은 때는 없나요?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유혹을 느낀 것처럼 신자인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심에 흔들린 적은 없나요?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적은 없나요? 특별히 힘든 일이 없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뤄두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삼손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드린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다급한 문제가 없어도,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갈망함

시편 63편을 읽겠습니다.

❖ 시편 63:1-11

- 1 하나님이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 4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 5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 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 7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 8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 9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 10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 11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하다

이 시의 표제어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어는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시에는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63편의 기도는 삼손이 드린 기도와는 대조적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자 비로소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광야가 아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면서도, 마치 극심한 갈증으로 물을 구한 삼손의 심정으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기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삼손은 갈증을 느끼기 전까지 자기 만족만 구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누리는 일시적인 만족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함으로,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해결되자마자 예전의 자기 모습으로 신속히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후로 삼손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앞두고서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밤낮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모든 악을 멸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면서 주님을 가까이 따를 것이니 주께서도 자신을 힘 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꾸준하고 일상적인 기도

우리가 삼손처럼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맛있는 음식 먹기를 더 좋아할 것이고, 기도와 말씀이 아닌 안 좋은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면서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셨다가 다시 부를 때까지 사라져주시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죽을 만큼 강렬한 갈증을 주신 이유는 삼손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힘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갈증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화나 간증에 등장하는 극적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과 같이 잠들어 있고 무감각한 자를 깨우시기 위해 강렬한 갈증을 겪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왜 우리 교회에는 ‘신년맞이 특별새벽기도회’나 ‘영적각성대부흥성회’가 없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전에 없는 열정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열정이나 간절함이 아닙니다. 외적인 형식은 어떠한 꾸준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도의 신실함을 반영합니다.

삼손의 진정한 대적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닌, 블레셋과 동화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유혹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대적도 내가 생각하는 원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교만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써의 본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연초에나, 기도원 같은 곳에 갔을 때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언제나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급하고 괴로운 상황이 아니어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틈을 내어 꾸준하고 친밀하게, 평생토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조용하고 일상적인 기도 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어떤 때에 견디기 힘든 갈증을 느끼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2. 삼손이 받았던 다음과 같은 유혹 중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 *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잠시 구별됨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 틈에 섞여 물 흘러가듯 살고 싶은 유혹
 - *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유혹을 느낀 것처럼 신자인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심
 - *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
 - * 특별히 힘든 일이 없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려는 계으름

3. 일상적이지만 꾸준한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